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0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선거 결과 국민 경고...투표용지 사태, 모범적 민주국가 망가뜨려”	정치	-
2	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선거 사무원 등 조사	사회	-

(1)기사/뉴스요약

“선거 결과 국민 경고...투표용지 사태, 모범적 민주국가 망가뜨려”

[앵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현안과 국정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결과는 자신과 정권을 향한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정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망가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

먼저 6·3 지방선거 결과는 자신과 정권에 대한 경고라며, 국정 기조는 이어가되 더 겸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선관위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부정선거 주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이 야당이었을 때와 집권한 뒤로는 달라야 한다고 하며 뼈 있는 말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이 모아 포용과 통합을 잘해야 한다,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 구분, 사상 검열 등 모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시간 가까이 마라톤 기자회견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민 임명식 당시와 같은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는 자신과 정권을 향한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선관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 (2)기사/뉴스요약

### 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선거 사무원 등 조사

#### [앵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인쇄업체와 선거 사무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김00/서울 송파구/지난 3일/음성변조 : "이제 투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당일, 노태약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이 경찰에 고발됐고, 닷새만인 오늘(8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순환/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세상에 투표하러 가서 투표용지가 없으면 그게 뭐니까?"]

거론되는 혐의는 형법상 직무 유기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단순 무능이나, 형사처벌 대상이냐는 '고의성' 입증에 가를 전망입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하지만 실제 인쇄는 50% 수준으로 맞춘 경위도 규명돼야 합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특정해 선관위 발주 물량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쇄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선관위 주문은) 거의 1년 전? 준비는 되게 오래전부터 하는 거예요. 발주받을 때 제 기억에 몇 명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선거 당일엔 용지 부족에 즉각 대응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송파구선관위는 이미 당일 오전 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들의 당일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해 살펴보는 한편, 조만간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핵심: 선관위가 잠실 투표소에서 철수하면서 유권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 물품을 그대로 두고가면서 불신을 야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가 되고 있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바스켓 예매	여러 종목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듯, 1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목을 묶어 한꺼번에 주문을 내는 일괄 매매 방식을 뜻한다.	매일경제
2	아피아 로드맵	유럽중앙은행이 제시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 전략	매일경제